

Robert Vannoy, Foundations of Biblical Prophecy, 강의 19

요엘 2-3

1. 요엘 2:17-18

지난 시간에는 요엘 2장 18절 이하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Bullock을 읽은 것을 기억한다면 그는 17절과 18절 사이에서 전체 책의 주요 구조적 구분점을 만듭니다. 18절의 질문은 “그러면 여호와께서” “질투하셨다” 또는 “그럴 그의 땅을 시기하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Bullock은 그것을 “질투했다”로 이해하고 그것은 이전 섹션에서 회개를 촉구한 후에 일어난 회개라고 추정되는 것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7과 18 사이의 공간에서 회개가 일어났고 이제 그 회개에 대한 주님의 반응에 대한 기록을 갖게 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저번에 논의가 끝날 때 했던 제안을 기억한다면 18은 미래이며 이미 행해진 것으로 추정되는 회개에 대한 역사적 반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 전체가 종말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종말론적으로 이스라엘을 치러 올 말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메뚜기의 비유가 있습니다. 18을 과거의 이미 일어난 일로 여긴다면, “내 백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26b와 27b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확실히 요엘 시대 이후로 유대인들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2. 요엘 2:23b 비 또는 의의 교사

이제 저는 23b절의 도입부에서 “시온의 백성들아 기뻐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그가 의로 너희에게 가을비를 내리셨음이니라” 고 말합니다. 이전과 같이 가을비와 봄비로 풍성한 소나기를 내리셨습니다.” 내가 읽고 있는 NIV에서 “그가 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가을비를 주셨으니”라고 말하는 K는 “또는 의를 위한 선생”이라고 말하는 K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 주님께서 “의로운 가을비” 를 주시는 것과 “의를 위한 스승” 을 주시는 것 사이의 번역 문제는 무엇입니까? 의미상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가 너에게 주셨다”에 대한 히브리어를 내가 준 유인물을 보라 . 그것이 문제가 되는 구절이다. *more*은 무슨 뜻인가요? 그 아래에는 NIVa와 NIVb가 있습니다. NIVa는 “그가 너희에게 의를 위하여 선생을 주셨음이니라” 고 말합니다. NIVb는 “그가 정의로 너희에게 가을비를 내리셨다” 고 말합니다. NIVa와 NIVb에 관한 한 그것은 NIV의 번역 과정과 출판 역사의 일부입니다. NIV가 처음 번역되었을 때 “그는

당신에게 의를 위한 선생을 주셨습니다.”라고 읽었습니다. NIV 본문은 수년에 걸쳐 주기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NIV를 읽고 있는 누군가와 함께 교회 어딘가에 앉아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 있는 것과 듣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그것은 번역 위원회가 특정 번역에 대해 제기된 문제를 수집한 다음 NIV가 추가로 인쇄될 때마다 텍스트를 수정하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다른 여러 NIV 인쇄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정 시점에서 그들은 그것을 멈췄습니다. 더 최근에 그들은 번역에 대해 제기된 많은 질문을 수집하고 NIV 텍스트를 철저히 개정했으며 약 1년 전에 오늘의 New International Version인 T NIV에 출판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NIVa와 b입니다.

King James는 “그가 너희에게 이른 비를 적당히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New American Standard 에는 “비”가 있습니다. Keil과 Delitzsch 주석에는 “의를 위한 스승”이 있습니다. 칠십인역에는 “두 겹”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moreh*라는 용어에 대한 오독이 있었습니까? 몇 가지 번역을 더 드리겠습니다. 영어 표준역에는 “이른 비는 너희의 의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생명번역에도 “비”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번역의 대부분은 “의를 위한 교사”가 아니라 “비”입니다.

구문에서 중요한 단어인 *moreh*는 일부 문맥상의 문제로 인해 일부에서는 “교사”로, 다른 일부에서는 “이전” 또는 “이른 비”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약간 복잡해 지지만 이것으로 저를 따르십시오. 대부분의 랍비들과 초기 주석가들은 그것을 “교사”로 번역할 것입니다. 칼빈과 많은 현대 주석가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이른 비”로 받아들입니다. 이 텍스트에서 찾을 수 있는 *yoreh*의 의미 중 하나인 *moreh*는 “교사”를 의미하며 논쟁 중입니다. *Moreh*는 교사를 의미합니다. *Yoreh* 다음 단어는 “이른 비”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10월 말부터 12월 1일까지 씨를 뿌릴 파종기에 팔레스타인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어 본문의 두 번째 줄에 나타나는 *게셈이*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위해 쏟아부었습니다, *geshem* “비”, 그리고 그 히브리어 본문의 마지막 구에서 당신은 *moreh*가 “늦은 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사 오류는 마지막 문구가 이전과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구절에서 두 번 나오는 *moreh*가 의심 할 여지 없이 이 구절의 마지막 절에서 “이른 비”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으로 다른 것을 거의 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모든 경우에서 이른 비는 *yoreh* not *moreh*입니다.

영어에서 텍스트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Dittography: yoreh 대신 Moreh 작성 그래서, 무슨 일이죠? 이 절의 마지막 구에 있는 *moreh*는 *dittography*라고 하는 필사자의 오류의 한 예인 것 같습니다 . 서기관은 *yodh* 대신에 *mem*을 썼는데, 그 구절의 앞부분에 *moreh*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 당신의 눈이 혼동하기 매우 쉽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고 *moreh* 와 *yoreh* 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봅니다. *moreh*가 구절의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yodh* 대신 *mem*을 거기에 넣었습니다 .

메시아 예언? 참조 쿨란

텍스트의 첫 번째 줄에서 *moreh* 다음에 오는 단어 *sadaqah*는 “적절한 시간에 정확히 측정”을 의미합니다. 교사가 아닌 비로 번역하려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사다카* 입니다 .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윤리적 의의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sadaqah*가 비를 언급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교사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해 “교사”는 오래된 유대인 해석이며 Vulgate와 Rashi에서 발견됩니다. 내가 보기에 이는 이것을 수세기 동안 이해되었던 방식으로 이해하는 데 좋은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를 위한 선생” 입니다. “의를 가르치는 교사”가 받아들여진다면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장 잘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이 장이 모두 미래이고 주님의 날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라면 의의 선생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Joel에 대한 언급으로 보지만 Joel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문맥에서 그가 자신을 언급하기 위해 그 정의를 사용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Keil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상화된 모든 선지자로 본다. 또는 쿰란에서와 같이 특정 지도자. 쿰란의 사해 두루마리 공동체에 의의 선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를 “의의 선생” 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그 문구가 있는 유일한 곳인 이 본문에서 그것을 얻었습니다.

Payne은 그것을 Joel 자신에 대한 자기 참조로 봅니다. Payne은 그것을 Joel에 대한 참조로 봅니다. 그의 견해는 여기에서 요엘이 이미 닦친 어떤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시온의 아들들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로 그들을 가르칠 교사 요엘을 주셨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듯이, 내가 보기에는 요엘이 자신을 의의 선생이라 칭하고 그가 오는 것을 기뻐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 같지 않습니다.

또한 Payne의 견해는 Joel 2의 해석에 대한 그의 더 큰 일반적인 접근 방식을 수용하는 경우에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가 Joel 2 전체에 대해 수행하는 작업은 2:1-11이 임박한 동시대 지역 전염병이라고 말합니다. 요엘의 다시 말해, 그는 그것을 묵시적이거나 상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임박한 동시대 메뚜기 재앙입니다. 2:19-26 그는 메뚜기 떼로부터의 동시대의 구원으로 보고 있으며, 물론 23절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이 “그는 선생을 주시고 의를 행하게 하신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메시아나 쿨란 종파의 지도자가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설교를 언급하는 예언자 요엘인 것 같습니다.

26b가 자신의 시간에 모두 성취된다면 그는 어떻게 합니까? 26b는 “내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Payne은 26b와 27이 미래의 메시아적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즉, 26a와 26b 사이에는 시간차가 있었다. 그는 요엘의 때로부터 마지막 때로 26을 옮겼다. 그것이 우리가 시간 관점에 관해 이야기한 그 질문이며, 시간차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예가 있습니다. 해석학적 원리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글의 흐름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챕터가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추가 고려 사항은 쿨란 주민들이

그들의 지도자가 의의 선생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 단어를 “선생”으로 해석했다는 증거입니다. 요엘의 가르침이 아니라면 이 칭호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래서 나는 2:23을 “가을비와 의를 가르치는 교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2장을 보라 주의 날이 오기 전이나 그 날과 관련하여 일어날 일들을 묘사하고 있다.

Vannoy의 분석: 언약의 길, 교사 및 비의 연결 이제 나는 언약의 길을 걷는 것과 비의 축복 사이의 연결에 대해 유인물에 없는 몇 가지 다른 설명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2:23 절에서 이 *moreh/yoreh* 와 함께 구약의 이전 구절에 뿌리를 둔 개념의 연결과 단어 유희의 요소가 적어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출애굽기 24장 12절을 보면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으로 내게로 올라와 여기 있으라 내가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 거기에 있는 마지막 두 단어는 “그들의 교훈을 위하여 ” 입니다. 그것은 Hophal 동사 형태입니다. *moreh* 와 *yoreh*가 나온 것도 같은 어근입니다 . 그래서 “ 내가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명령을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yora* 의 Hophal 형태 .

레위기 26:3-5을 펴십시오. “너희가 내 규례를 따르고 내 명령을 주의하여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리리니 땅은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거둘 때까지 계속되고 포도 추수는 심기까지 계속될 것이며 너희가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비가 주어진다. 비는 히브리어 게셈(*geshem*) **입니다**. 구절의 끝에서 사용되는 다른 단어입니다. 비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즉 지시를 따를 때 주어집니다.

열왕기상 8:35-36을 펴십시오. 이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 드린 기도라 그 기도 중에 이르기를 주의 백성이 주께 범죄하므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이 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들을 괴롭게 하였으니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다음 “그들에게 올바른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비를 보내십시오.” 라는 내용에 유의하십시오. “Teach”는 다시 *yoreh* **입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비를 보내십시오.” 올바른 길로 가르치고 걷는 것과 비를 주는 것 사이의 연결을 보십시오. “ 주의 백성에게 기업을 주신 땅에 비를 내리소서.”

이사야 30:20으로 이동하고 다음을 따르십시오. 이사야는 “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주실지라도 너희 스승들은 *다시* 숨지 아니하리라. 네 눈으로 그들을 볼 것이다.”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그들”이 당신의 선생이고, 선생이 반복 *됩니다*. “네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돌이키든지 네 뒤에서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토라의 길을 가십시오. “그 때에 너희는 은을 입힌 너희 우상들과 금을 입힌 너희 우상 들을 더럽혀 생리포 같이 던지며 너희에게서 떠나라 하라” (23절). “그는 또한 당신에게 비를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길을 걷는 것과 교사와 비 사이에 관련이 있는 많은 구절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요엘 2:23의 언어는 구약의 초기 구절에서 전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어도 23b의 첫 부분을 “그가 너희에게 의를 위하여 선생을 주셨느니라”로 번역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주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답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구절의 나머지 부분이 비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moreh*를 “교사”로 번역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마지막 줄이 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서 앞 줄이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부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스승과 비와 언약의 길을 걷는 것을 연결하는 이전의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올바른 길로 걷도록 가르칠 선지자나 교사를 주실 것이고 이것이 일시적인 비의 축복으로 이어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완벽하게 이해되며 유사한 언어 및 단어 조합의 이전 사용과 일치합니다.

3. 요엘 2:28-32 및 사도행전 2:14ff과의 연결 - 다른 접근 방법

2번 요엘 2:28-32로 가봅시다.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요엘서의 개요가 있습니다. 로마 숫자 I, 1장, “당대의 메뚜기 재앙에 대한 설명”. 그런 다음 2장 1절부터 3장 21절까지의 2절은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다가오는 주의 날에 대한 세 가지 묘사”를 포함하여 다른 측면을 강조합니다. 방금 살펴보았습니다. 2:1-27에 따르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첫 번째 설명입니다.” 비. 2:28-32, “주님의 날이 오는 것에 대한 두 번째 묘사, 여기서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은 주님의 날보다 앞서 있을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집어 들고 앞으로 갑시다.

Hobart Freeman의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Prophets* 에서 그는 요엘 2:28-31의 예언 성취에 대한 5가지 다른 해석을 나열합니다. 이 예언은 히브리어로 요엘 3장입니다. 문제는 사도행전 2:14-24에서 성령 강림에 대한 요엘의 예언이 오순절날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성취되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열 한 사도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풀이하게 하리니 .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어라. 이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취한 것이 아닙니다 . 아직 아침 9시입니다. 아니, 이는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라’ ” 그런 다음 그는 요엘 2장 28절을 인용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의 아들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 등등. 2장 16절은 베드로가 “이는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을 때 매우 강력한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이 다섯 가지 견해를 볼 때 명심하십시오. “오순절에 해지”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Ridderbos는 요엘의 예언의 성취가 요엘 시대의 특정 사건과 예언이 끝나는 오순절에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eil에 따르면 몇몇 유대인 해석자들은 예언에서 성취가 마지막 때에 끝나는 요엘 시대의 어떤 사건에 대한 언급을 보았다.

비. “오순절에 성취”는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고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예언의 성취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때입니다.

씨. “불성취 또는 종말론적 견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것은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언은 이루어진 적도 없고 교회가 형성되는 현 시대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고전적인 섭리적 관점을 표현한 Gaebel
lein입니다. “이 일이 성취된 후에 주님은 그의 지상 백성[이스라엘]
과의 관계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의 시대에 그가 나타나실 때 그들은
이 위대한 예언의 성취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당신에게 이스라엘과 교회라는 두 사람이 있고 이것은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구약성경이 전혀 알지 못하는 신비 또는 괄호입니다.

다. “전형적인 성취 견해”는 요엘의 예언이 오순절에 “
본격적으로” 성취되었지만 천년왕국까지는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것은 Jamieson, Fauset 및 Brown 논평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에 성취되었지만 종말론적으로 최종 성취로 완성되는
이중적 의미입니다. 오순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e. “지속적 성취관” 요엘의 예언은 오순절부터
종말론적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이것이 다섯 가지
옵션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으로 다른 방향으로 갔다.

요엘 2:28 그러므로 예언을 봅시다.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아들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내가 하늘과 온 땅에 이적을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구원을 얻을 것임이라 곧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남은 자 중에 구원이 있을 것임이니라

“그 후에” 그리고/또는 “마지막 날에” 따라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그것은 NIV가 “그리고 그 후에”로 번역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칠십인역」은 “이 일 후에” 라고 번역합니다. 사도행전 2:17에서 이에 대한 베드로의 인용 에서 그는 “후에 ”를 다른 것으로 대체합니다 .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더 정확한 시간 지정입니다. 그 일반적인 “나중에” 대신에 그는 “마지막 날에”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말세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 영을 저희에게 부어 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라는 명칭. 이것이 구가 이해되어야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요엘 2장 문맥에서 선행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순차적으로 참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2:28로 돌아가서 그가 오신 후 “그 후에”라고 말하는 것은 27절에 설명된 이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엘 2:27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으니 내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다음 여기 28절에서 섹션을 시작합니다. 그 시간 지정은 마지막 날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요엘 2장 문맥에서 그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순차적인 참조가 없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요엘 2:28로 시작하는 별도의 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그것은 원래 텍스트에는 없었지만 거기에 단절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훨씬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약성경의 인용에서 요엘 2:28에서 “그 후에”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다루시는 새로운 시대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내가 내 백성을 위해 무언가를 할 이 새로운 기간입니다. “마지막 날”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하여 재림과 그와 관련된 사건으로 끝날 것으로 이해됩니다.

내가 거기에 열거한 본문 중 일부를 그가 썼다면 그것은 신약성서에서 “마지막 날”과 강림 사이의 시간이 사용되는 꽤 일반적인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소개 시간 지정이며 베드로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다루시는 이 새로운 기간과 강림 사이의 시간을 추가하여 해석한 의미에서 “나중에”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내리라.”

성령을 부어주심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라는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성령을 얻는 것이 완전히 부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은 분명히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성한 활동의 이 새로운 시대에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질 것입니다. 일어날 새로운 일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성령은 선택된 특정 개인을 위한 신정의 특정 임무나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언급되었습니다. 성령에 대한 언급을 보면 그런 종류의 언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막을 지은 장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출 31:3), 그들이 예술적인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여러 사사에게 임하심, 삿 6:3 4, 11:29; 압제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13-14에서 사울과 다윗이 왕이 되어 그들에게 주어진 신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려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선지자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하신다(삼하 20:32-38). 그런 경우에 성령이 이들 개인에게 임하여 자격을 갖추게 하고 신권에서 그들의 특정한 임무를 위해 그들을 성별했습니다.

요엘이 말하는 새 시대 에 성령은 모든 육체에 임할 것입니다 .

함축적으로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 모든 육체에 이르기까지 선물을 확장합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구약성경에는 그러한 종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지만, 이것은 구약시대에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의 중생과 영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될 필요는 없습니다.

구약의 성령

Leon Wood는 *The Holy Spirit in the Old Testament* 라는 책에서 성령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구약의 수많은 언급을 논의합니다.

구약시대 성령의 역사에 관한 문헌은 많지 않습니다. 나는 Leon Wood가 쓴 그 작은 책이 당신이 발견하게 될 만큼 좋은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절판되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접했을 수도 있지만

구약성서에서 성령에 대한 매우 유용한 토론입니다. 그의 결론은 구약 성경에 사람의 영적 갱신에 영향을 미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성령이 활동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밖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의 본보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

그들 자신의 노력으로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일부 신약 성도들이 가지지 못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구약 성도들의 삶에서 역사하셨다는 증거는 그들이 살았던 방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신약에 정의된 성령의 열매를 나타냈다면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람 안에서 일하시지 않고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이 신약의 성도들처럼 거듭났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인정되는 추론이지만 나에게 그것은 정당한 신학적 추론으로 보입니다. 왜 구약성경은 중생을 논하지 않습니까? Wood는 “그 대답은 오직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까지 이 계시를 기다리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셨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정당한 결론인 것 같습니다.

우드는 성령의 역사에 관한 책을 쓴 Abraham Kuyper를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논리적인 결론인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 틀림없으며, 구원의 은혜는 성령의 내적 역사 없이는 의문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과 우리 자신 안에서 믿음의 일꾼이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나는 그런 종류의 문제를 요약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령 역사의 차이 [목]

그렇다면 구약 시대의 성령 역사와 말세 새 시대의 성령 역사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성령님은 구약 성도들의 삶에서 중생케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요엘의 이 예언은 무엇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재림 사이의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겠다. 차이점이 뭐야?

Wood는 일반적으로 신약성경에서 성령의 역사와 관련된 여러 용어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여기에는 중생, 내주, 인침, 충만, 능력 부여 및 침례가 포함됩니다. 우드는 그의 책에서 중생, 내주, 인침, 충만, 권능 부여가 모두 두 경륜의 시대 모두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성경에서 새로운 것은 오직 성령세례뿐이다. 그것이 그의 논제이다. 오순절에 시작된 성령의 사역의 이러한 측면입니다. 이제 저는 Wood의 말을 인용합니다. 사실, 교회를 세운 것은 신자들의 성령 세례였습니다... 신자들이 그것을 형성하기 위해 세례를 받았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예루살렘에 모인 신도들에게 임하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행 2:1-12).”

고린도전서 12:13-14의 성령 세례 성령 세례의 진리는 고린도전서 12:

13-14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령 세례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 :13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리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Wood 는 “성령의 세례는 기독교인들을 교회 관계의 공동 유대로 결합시키는 일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문맥상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문맥상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에 대해 말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 이며, 성령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느낌과 인종, 민족, 언어의 장벽을 넘어 신자 사이에 존재하는 연합을 가져옵니다. 이제 이 한 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영적 몸. 그것이 침례가 하는 일입니다. 세례는 “교회 관계의 공동 유대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결합시키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하나로 묶어 유기적인 하나를 줍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상호 사랑의 감각을 제공하고 그들 앞에 공동의 목적을 설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곳마다 즉각적인 친밀감과 우정을 느끼는 것은 이 연합하는 세례 덕분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그룹이고 하나의 거대한 기업의 일부입니다...

“ 침례의 순간은 중생의 순간과 같습니다. 사실 그것은 내주와 인침이 시작되는 순간과도 같다... 복음 메시지. 그리스도는 이제

사셨고 죽으셨으며 구원의 좋은 소식은 잃어버린 세상에 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준비가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이스라엘에서 그의 말씀을 대부분 분리하셨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분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놀라운 마련에 대해 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국가적으로 특별한 민족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장벽이나 '중간벽'이 없는 보편적인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는 다른 기반 위에 세워진 새로운 유기체가 필요했습니다. 이 유기체는 교회였습니다. 유기체는 통합, 일체감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신을 공통의 그룹으로 인식하고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오순절에 믿는 자들의 집단적 세례에 의해 공급되었고, 거듭남의 때에 계속되는 개인의 세례에 의해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Wood는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침례가 신자를 위한 능력 부여의 특정 측면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를 위한 이 능력은 누가복음 24:49에서 이미 그리스도에 의해 약속되었습니다 .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다시 약속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우드가 시사하는 바는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것은 주님의 날이 오기 전인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며 이 침례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를 위한 성령과 능력으로. 그것이 새로운 것, 그것이 구약 시대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민족적 몸에서 영적 몸으로의 전환에서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조직에서 이제 시작되는 차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우드의 논의는 이스라엘과 교회의 문제를 제기한다. 교회와 이스라엘 사이의 불연속성을 상정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순절에 성취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이스라엘에서 성취될 것이라는 견해, 이 큰 괄호는 극단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그것은 두 민족, 두 운명, 두 구원의 길의 연속성을 보지 않는 경륜의 시대적 관점입니다. 요컨대, 완전한 불연속성.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거의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구약에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인 것 같지만 조직의 원리는 다릅니다. 그것은 구약에서는 국가적이며 신약에서는 초국가적입니다. 이 민족적 조직과 비교할 때 영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구별을 너무 적게 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의 새로운

경륜과 조직의 다른 원칙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동일시됩니다. 성경적 관점은 하나님의 한 백성이지만 조직의 두 가지 다른 형태입니다.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한 구원의 한 길에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구약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신약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불연속성입니다. 동시에 민족적 영체에서 초국가적 영체로의 변화에는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관점에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유지하는 문제인데 종종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요엘 2:28a로 돌아가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

이제 텍스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 상반절은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라고 말한 다음 계속해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날에는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을 막론하고 부어 주리라.” 28절과 29절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나이, 성별, 지위, 지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령을 주시며, 심지어 노예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모든 육체이며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어질 것입니다.

“예언하다” , “꿈을 꾸다” , “이상을 보다” 라는 표현의 의미를 해석할 때, 여기에서 요엘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구약성서의 개념으로 말한다고 말하는 칼빈의 제안을 따르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성령의 기능.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요엘 시대에 성령께서 기능하신 방식에 대해 이해되었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행과 관련하여 이러한 특정 기능에만 제한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너희의 아들과 딸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하였기 때문에 예언하는 것이 아들과 딸에게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아들딸만 합니까? 또는 “꿈을 꾸는 꿈”은 노인에게만 국한될 것입니다. Keil이 제안한 것처럼 이 용법은 “수사학적 개별화”로 가장 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요엘이 말하는 새 시대에 각계각층의 각 개인에게 성령의 다양한 역사가 명백히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성령의 모든 각양각색의 역사가 각 시대와 사회의 모든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 예수님은 복음의 다양한 신약 성경 본문에서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틀림없이 제자들은 이 약속이 실현되기를 고대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7절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말을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오.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고 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응답은 무엇입니까? 6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모였을 때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에서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라고 묻는 진술입니다. 어떤 이유로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을 왕국의 강림과 연관시켰음이 분명합니다. 거기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일러 준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은 왕국이 오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들은 왜 성령의 강림을 왕국의 강림과 연결시키려 합니까?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그들이 요엘이 성령의 강림과 주의 날의 강림 사이에 맺은 연관성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8절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31절로 이어집니다. 성령 강림은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두 가지를 연결했습니다 . 둘 다 말세라는 같은 시대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응답은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피합니다. 그렇다면 28일과 29일의 성취를 오순절에 시작하여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내 견해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예언자 요엘이 말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지속적인 이행의 개념은 부분적 이행 또는 전형적인 이행의 관점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예언은 오순절에 성취되었고 마지막 날 동안 계속 성취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의 기간은 알 수 없습니다. 시간차는 얼마나 되나요? 오순절 이후 지금까지 이천년이 지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4. 요엘 2:30-32 오순절의 표적과 성령

계속해서 요엘 2장 30-32절을 봅시다. 예언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어둡고 두려운 날에 앞서 하늘과 땅에 징조를 선포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징조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오순절 날에 일부만 성취되었다면 베드로가 거의 모든 구절을 인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두 가지가 병치되어 있는 예언적 시간 관점의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모두 마지막 날에 속하지만 예고하지 않은 기간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 성령을 주시는 일과 주의 날은 모두 그 특정한 시점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처리 기간에 속합니다. 그리스도의 두 번의 재림을 분리하는 기간은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은 임박하여 그것이 마지막 때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하십시오.

내 견해는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구약 성경에는 다음 번에 땅으로 돌아올 때의 분산과 포로에 대한 예언이 너무 많이 강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스라엘을 위한 교사를 찾고 있으며 로마서 9-11장에서 바울이 그것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진술 뒤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관한 바빙크(*개혁교의학*)

Herman Bavink의 개혁교의학 (*Reformed Dogmatics*) 에 있는 단락에 여러분의 관심을 끌겠습니다 . 헤르만 바빙크가 훌륭한 작품인 4권의 신학을 썼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오랫동안 영어로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번역 중입니다. 4권 중 처음 2~3권은 지난 몇 년 동안 출판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네 번째 볼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에 관한 이 단락이 여기에 삽입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신 후 성취하신 첫 번째 활동은 성령을 보내신 일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약속하신 성령 곧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이 사람을 땅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행 2:33)… 승천하시기 전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있는 흥미로운 말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Bavink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끊임없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 이전에 성령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성령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 이 아니라 성령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과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이전에 채워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5에는 “시므온이 성령으로 성전에 있더니” (눅 2:26-27)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량없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것, 요 3:34. 그리고 오순절 이전에 제자들이 성령의 존재를 몰랐다는 의도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구약성서와 예수 자신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성령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행 19:2).

이것은 성령의 존재가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성령의 놀라운 역사, 즉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듣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선지자요 그의 성령으로 거듭난 선지자라는 것을 잘 알았으나 그들은 요한의 제자로 남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였더라. 따라서 그들은 오순절 날 성령을 받은 신자들의 무리 밖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에 일어난 사건은 이전에 이미 계셨고 많은 은사를 주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신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것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백성이 그의 성전에 있는 것 같도다” “성령의

부으심은 창조와 성육신 다음으로 하나님의 세 번째 큰 일입니다.”

이제 Bavink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세 가지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창조, 성육신 및 성령의 부으심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특별한 성령의 은사는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약속되었으므로 오순절에 일어난 일의 중요성을 최소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순절부터 현재까지 모든 신자의 삶과 경험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 한 몸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요엘 2:31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

조금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날은 요엘 2장 31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 세 구절은 주님의 날이 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것은 성령의 부어짐과 하늘의 우주적 징조에 뒤이어 온다. 따라서 이 구절은 구속사의 진행 과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성령의 보내심이 주님의 오심의 날보다 앞서 있을 것임을 배웁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이 시기에 이것으로부터 여러 가지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은 주님의 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 기간은 재림 사이의 기간인 말세의 영의 기간으로 적절하게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이 유인물의 나머지 부분은 특히 사도행전에 묘사된 성령의 역사에 대한 논의입니다. 성령이 빌립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인도하고, 성령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로 인도하고, 성령이 교회를 안디옥으로 인도하고, 성령이 교회를 선교의 중요한 문제로 인도하고, 성령이 바울이 아시아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등등.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을 붙이는 대신 "성령의 행전"이라는 제목을 붙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 요엘서 3장에 대한 설명: 열방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영어 성경의 요엘 3장, 히브리어 성경의 4장인 세 번째 구절에 대해 아주 빨리 몇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의 날의 도래에 관한 이 세 번째 구절은 "열방의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나는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코멘트를 하겠다. 영어 성경으로는 요엘 3:1-21이고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4장입니다.

요엘 3:1 그 때에

이 구절을 소개하기 위해 다시 시간 지정을 받게 됩니다. 요엘 3 :1, “그 날과 그 때에” 를 주목하십시오. 몇 요일, 몇시에? 이전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는 이전 구절과 같이 다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날 그 때에” 가 1절에 나오는 “그날 그 때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운명을 돌이킬 때에 모든 민족을 모아 그들을 멸할 것이요” 에 의해 정의된다고 생각합니다 . 여호사밧 골짜기로 .” 그래서 “ 내가 그런 일을 하는 날에”입니다. 따라서 시간 지정은 바로 앞의 문구가 아니라 다음 문구를 참조합니다. 그리고 이 문구는 다가오는 주님의 날을 설명하는 세 번째 구절을 소개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그러므로 요엘이 이르되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포로를 돌이키는 그 날에 내가 열방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게 하리라. 거기서 내가 내 기업, 내 백성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리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모아 심판하실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디 있느냐 일부는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을 무찌른 역대기하 20장 26절에 근거하여 브라가 골짜기라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그 골짜기가 여호사밧 골짜기가 아니라 브라가 골짜기라 불린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이름을 생각해 보면 여호사밧은 ‘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 는 뜻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어

어근 *shaphat* 와 “주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접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 골짜기는 여호와와 심판이 있는 곳이므로 지리적 지명이라기보다 심판의 상징으로 그 이름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14절을 보면 유사한 언급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지리적 위치에 고정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곳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러 모인 열국을 심판하실 곳입니다.

요엘 3:2 - 열방에 대한 심판 2절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모든 열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판단은 무엇입니까? 누가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보기에 심판은 단순히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귀환한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전쟁을 위해 모일 때 주님이 능력과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 승리하실 승리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천년 왕국과 같은 것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나는 이것을 스가랴 14장 2절과 같은 본문과 연관시키고 싶습니다. 도시는 함락되고 , 집들은 약탈당하고, 여자들은 강간당할 것이다. 도시의 절반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도시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서 전쟁의 날에 싸우시는 것같이 그 열방과 싸우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설 것이요” 이것이 재림입니다. 2장을 다시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과도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9절에 “너희는 이것을 만국 중에 공포하여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일으키며 모든 용사로 나아와 공격할지어다. 쟁기를 쳐서 칼을 만들고 가지치기 가위를 쳐서 창을 만드십시오.” 이사야 구절의 반전에 주목하십니까? 창을 쟁기로 쳐서 보습을 만드십시오. 이것은 그것의 반전입니다. “나약한 자도 '나는 강하다' 고 하여라. 사방에서 모든 민족들이 거기에 모이도록 오십시오. 너희 용사들을 데려오라 열방이 일어나 여호사밧 골짜기로 진격할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 모든 열방을 심판할 것임이니라 그 심판은 단순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모인 열국에 대해 성취하시는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싸움과 시련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으로 나의 의견을 남길 것 같지만 그것은 열방의 이 심판과 관련하여 주의 날의 임함을 묘사하는 세 번째 구절입니다.

오드리 디아스가 각본

러프 편집: Ted Hildebrandt

Katie Ells의 최종 편집

Ted Hildebrandt의 재연설